

佛法 바르게 전하는 '지혜의 대물림' 장엄하다

양대 강맥 전강 대법회 (兩大講脈傳講大法會)

2009년 8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 석가모니 부처님의 78대손인 대원 문재현(大圓 文載賢) 전법선사(傳法禪師)님이 주재하는 정법도량, 경기도 포천의 국제 정맥선원에서 전강 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국내 유일의 북방과 남방의 양대 강맥, 금강산 장안사 화엄종주(華嚴宗主) 회광 사선불(晦光 師瑤佛)의 강맥과 가야산 해인사 용성 진종(龍城 震鍾) 대조사(大祖師)님의 강맥을 전하는 전강의식이 있었습니다.



대중을 향해 '법'을 하는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당대에 천지를 뒤흔드는 법거량으로 뜻 지식이 아낌없는 인중을 받고 용성(龍城)문중과 만공(滿空)문중의 법을 한 몸에 받으신 '지혜제일' 전강(田剛)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大圓 文載賢) 전법선사(傳法禪師)님께 국내에서 유일하게 북방과 남방의 양대 강맥을 한 몸에 지니신 가산(迦山) 큰스님께서 양대 강맥을 전하셨으며 특히 양대 강맥을 전하는 신표로, 금강산 강맥의 불자(佛子)와 달라이라마로부터 받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함께 전하셨습니다.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과 가산 큰스님은 과거 가야산중의 사형, 사제로 함께 승려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가산 큰스님은 항상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법을 흠모해오던 중 불법문중에 깨달은 이가 없어 모든 경전과 조사어록이 눈뚫 안목으로 바르게 번역되지 못해 불법이 마실로 번지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큰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2009년 5월 9일 가산 큰스님이 국제정맥선원을 방문하여 용성 대조사님으로부터 봉암 대희(鳳庵 大喜) 대강백에게 이어져 다시 가산 큰스님에게 전강된 강맥이 봉암 대희 대강백으로부터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로 직접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강, 바른 번역은 깨달은 이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기 에, 확철대오하여 일체종지를 이루어 77조 전강 대선사님으로부터 법맥을 이어받은 78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 봉암 대희 대강백으로부터 직접 받은 강맥을 내놓고자 하신 것입니다. 불경이나 선사 번역이, 법맥과 강맥을 함께 이어받은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에 의해 감수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서 후세에 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끝내 가산 큰스님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제인 가산 큰스님이 존경하는 범행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께 양대 강맥을 전강하는 의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위법망구(爲法忘軀)라. 법을 위해서 당신이 받은 국내 유일의 양대 강맥을 아무 망설임 없이 내놓으시고 자한 가산 큰스님과 불법의 바른 전승을 위해 손쉬운 길을 마다하고 굳이 사제에게 전강을 받는 일을 기꺼이 감수하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어느 쪽이 더하고 말할 것 없이 불법을 위한 몸을 잊은 회생과 만인을 위한 자비의 보살심에 정맥선원 대중 모두는 불도를 수행하는 이들과 불법을 받는 불자들을 대신하여 무릎 꿇어 우러러 찬탄하고 감사의 삼배를 올립니다.

부처님 당시에 불법의 바른 전승을 위해 가섭 존자와 아난 존자 사이에 사제가 제자가 되어 사형으로부터 법맥을 잇는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이번(깨달음)의 바른 전승을 위한 회유함이지요. 이제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과 가산 큰스님 사이의 사제가 사형에게 전강하고 사형이 사제에게 전강을 받아 강맥을 잇는 이 일은 사형(깨달음)을 전하는 경전 번역에 있어서의 불법의 바른 전승을 위한 회유함이지요. 이 어찌 놀랍고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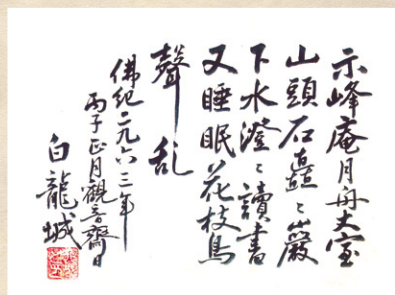
불법이 쇠퇴하고 서로 자리다툼과 이의다툼에 눈먼 이들이 많은 오늘날 법을 위한 부동의 지표, 금강의 나침반이 되어주신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과 가산큰스님께 다시 한 번 그 참담고 실다운을 찬탄하며 그 회유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삼배를 올립니다.

백용성 대조사님이 봉암 대희(봉암 월주) 대강백에게 내린 전법계



백용성 대조사 진영

봉암 월주 장실에게 보이다
산머리 돌은 우뚝 솟구쳤고
바위 밑의 물은 맑고 맑도다
글을 읽고 또 조는데
꽃가지의 새소리 자자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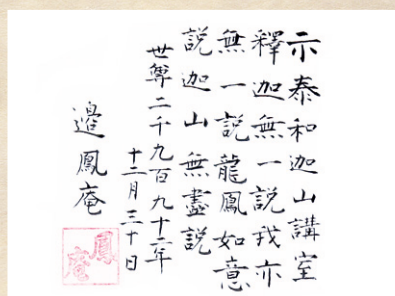


봉암 대희 대강백이 석가산 대강백에게 내린 전강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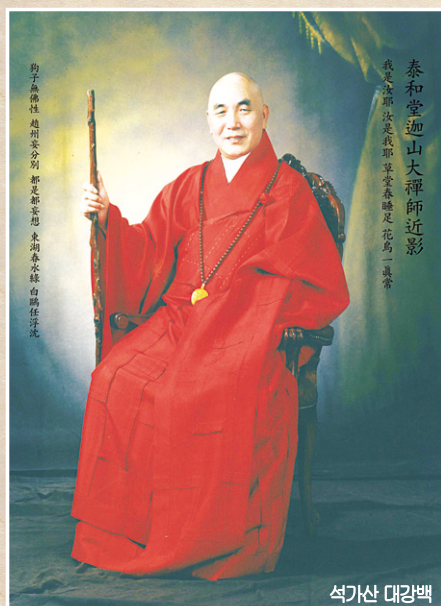


봉암 대희 대강백 진영

래화 가산 강실에게 보이다
석가는 한마디도 한적이 없고
나 또한 한마디도 한적이 없는데
용성은 봉암에게 뜻과 같이 말했으니
가산은 다함없이 설하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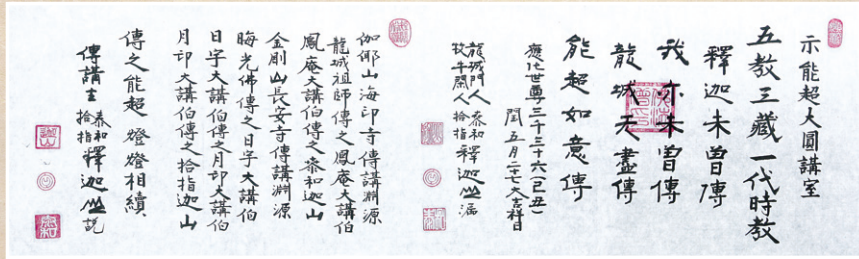


석가산 대강백의 전강 법문 및 전강송



석가산 대강백

능초 대원 강실에게 보이다
석가에서 일찍이 전한 바가 없고
나 또한 일찍이 전한 바가 없는데
용성은 다함 없게 전했으니
능초여 뜻과 같이 전할전저



법단에 오르는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좌)과 석가산 큰스님(우)

"이 큰뜻 헛되지 않도록 정법위해 씬없이 노력"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의 수강 법문 및 수강송

근대의 선지식 중 그 지혜가 밝아 유일하게 우주론에까지 조예가 있었던 백용성 대선사님의 강맥은 강맥 그대로가 법맥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금강산 장안사의 강맥 역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석가산 대강백만이 받아 지닌 강맥이라 할 것입니다. 미래에 바른 불법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없는 역경(譯經)으로는 안 되기에, 지금으로부터 48년 전인 1962년 대구 동화사에서 전강 대선사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부처님의 혜명을 이은 사람이 양대 강맥을 꼭 받아 지녀야 한다는 석가산 대강백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였으니 이 큰 뜻이 헛되지 않도록, 정법을 위한 일들을 씬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다짐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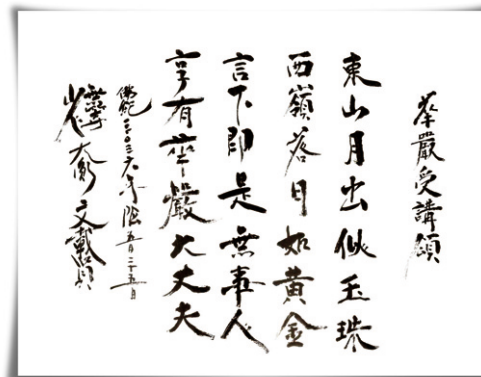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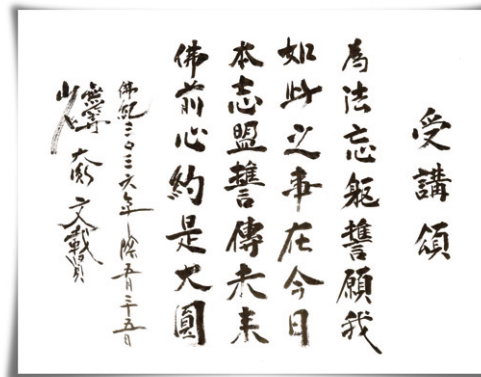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님

수강송

법을 위해 몸 잊을 것 서원한
이 사람이기에
이와 같은 일이 오늘에 있음일세
근본 뜻을 맹세코 미래까지 전할 것을
부처님전 마음으로 약속하는
대원입니다

화엄수강송

동산에 뜨는 달 옥구슬 같고
서령에 지는 해 황금과 같네
언하에 곧바로 일없는 이라야
화엄을 누리는 대장부라 할걸세



今日此事都歡喜 하야
林裏禽獸在歌唱 하고
山川草木讚嘆舞 인데
是會大眾會未麼 아
噯!
(拄杖二下)

오늘의 이 일을 모두가 기뻐들 하여서
숲속의 금수들도 노래를 저리들 부르고
산천의 초목들도 찬탄의 춤을 추고 있는데
이 모임의 대중들은 아십니까, 모릅니까?
악!
(주장자를 두 번 치다)